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해외 교육기관 방문에 따른

## 북유럽 방문 보고서

2013. 7. 7.(일) ~ 7. 18.(목)

러시아,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 차 례

- I. 개요 ..... 1
  - 1. 목적 ..... 1
  - 2. 방문 국가 ..... 1
  - 3. 방문 기간 ..... 1
  - 4. 방문단 구성 ..... 1
  - 5. 주요 방문기관 내용 ..... 1
  - 6. 주요 일정 및 방문기관 ..... 2
- II. 방문국 기본정보 ..... 3
  - 1. 러시아 ..... 3
  - 2. 스웨덴 ..... 5
  - 3. 덴마크 ..... 7
  - 4. 아이슬란드 ..... 9
  - 5. 벨기에 ..... 12
  - 6. 룩셈부르크 ..... 14
- III. 방문국 교육제도 ..... 16
  - 1. 러시아의 교육제도 개관 ..... 16
  - 2. 스웨덴의 교육제도 개관 ..... 20
- IV. 방문교육기관 및 활동 ..... 29
  - 1. 주요 방문기관 ..... 29
  - 2. 각 나라 교육 기관별 방문현황 ..... 29
  - 3. 방문기관 소개, 방문 소감 및 시사점 ..... 31

# 사·도교육감 해외 교육기관 방문 보고서(복유럽)

## I. 개요

### 1. 목적

- 선진국의 교육제도 및 주요정책 등을 비교·분석하여 대한민국 교육발전 방향 모색 및 건전한 지방교육자치 발전 제고
- 국외 우수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교육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우수사례 탐색

### 2. 방문국가 : 러시아,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6개국)

### 3. 방문기간

방문지역	방문기간	일수	비고
복유럽	2013. 7. 7(일) ~ 7. 18(목)	10박 12일	

### 4. 방문단 구성

순	지역	직급(책)	성명		성별	비고
			한글	영문		
1	충북	교육감	이기용	LEE KEE YONG	남	
2		비서실장	김자중	KIM JA JUNG	남	
3		주무관	이팀제진	LEE TIM JE JIN	남	
4		장학사	이미숙	LEE MI SOOK	여	
5		학교장	신명희	SHIN MYEONG HEE	여	
6	세종	교육감	신정균	SHIN JEONG KYUN	남	
7		장학관	홍의순	HONG EUI SOON	여	
8		사무관	정광태	JUNG KWANG TAE	남	
9		수행비서	오범수	OH BEOM SOO	남	
10		교사	신현경	SHIN HYEN KYUNG	여	

### 5. 주요 방문기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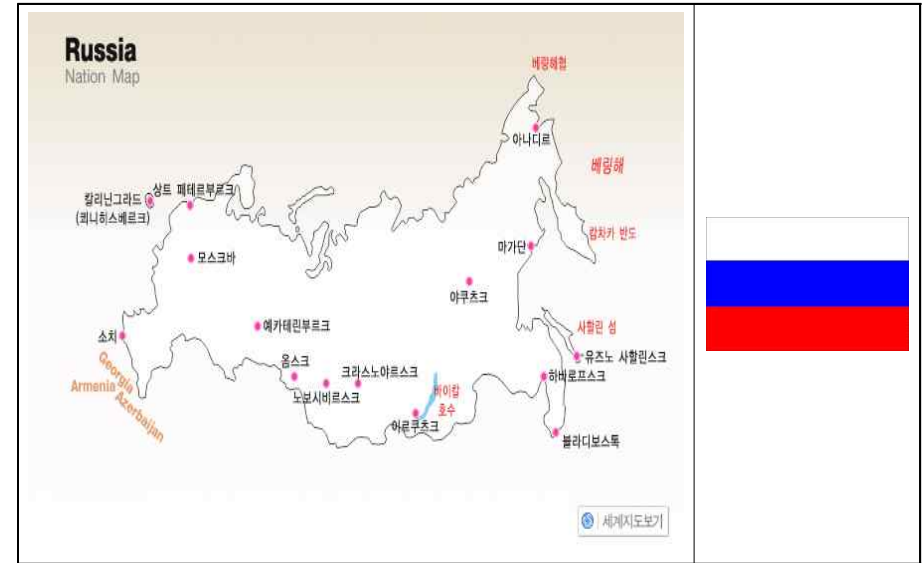
방문 국가	주요 내용
러시아	- 모스크바국립대 부설중학교 수학·과학영재학교 방문 - 차이코프스키 중앙 음악영재학교 방문
스웨덴	- 스웨덴 청소년 문화센터 방문
덴마크	- Øregard Gymnasium 학교 방문
벨기에	- 벨기에 교육부 방문
룩셈부르크	- Lycée Robert Schuman 학교 방문

6. 주요 일정 및 방문기관

순	날 짜	주 요 일 정	비 고
제1일	7.7.(일)	인천공항 출발 → 러시아 도착	
제2일~ 제4일	7.8.(월) ~ 7.10.(수)	<b>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 간담회</b> <b>모스크바 영재학교(Intellectual School) 방문</b> <b>차이코프스키 중앙음악학교 방문</b> 러시아 출발 → 스웨덴 도착	
제5일	7.11.(목)	스톡홀름 시청사 및 스웨덴 국회의사당 등 견학 <b>스톡홀름 청소년문화원 방문</b> 스웨덴 출발 → 덴마크 도착	
제6일~ 제7일	7.12.(금) ~ 7.13.(토)	코펜하겐 시청사 등 방문 <b>외레하드 고등학교(Oregard Gymnasium) 방문</b> 덴마크 출발 → 아이슬란드 도착	
제8일~ 제9일	7.14.(일) ~ 7.15.(월)	레이카비크 시청사 및 교육 시설 견학 아이슬란드 출발 → 네덜란드 도착(경유) → 벨기에 도착 <b>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 간담회</b>	
제10일	7.16.(화)	<b>벨기에 교육부 방문</b> 보자르 예술센터 등 견학 후 브뤼셀 출발 → 룩셈부르크 도착	
제11일	7.17.(수)	<b>리쎬호베흐슈망고교(Lycée Robert Schuman) 방문</b> 룩셈부르크 출발 → 독일 도착(경유) 독일공항 출발	
제12일	7.18.(목)	인천공항 도착	

II. 방문국 기본 정보

1. 러시아



매서운 눈보라가 사계절 계속해서 몰아칠 것만 같은 동토의 나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를 이끌어가는 4대강국의 하나였지만 공산주의국가라는 이유로 인해 실제적인 지리상의 거리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더욱 멀게만 느껴졌던 나라, 그렇긴 해도 영화 "백야"와 "닥터 지바고"의 낭만으로 애뜻하게 기억되기도 하는 곳, 일반적으로 러시아 연방(Russian Federation), 즉 구 소련을 생각하면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들이다.

- ◆ 수 도: 모스크바 (Moscow, 864만명)
- ◆ 인 구: 약 1억 4020만명 (2006년 추정치)
- ◆ 면 적: 17,07만km<sup>2</sup> (한반도의 78배정도)
- ◆ 주요도시: 상트 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톡, 하바로프스크
- ◆ 주요민족: 러시아인(82.6%), 우크라이나인(3%), 타타르인(3.8%),
- ◆ 주요언어: 러시아어(Russian)
- ◆ 종 교: 러시아정교

사회주의가 붕괴된 후 10여년이 지난 오늘날, 정치·경제적으로는 매우 혼란한 상태임에 틀림없지만 지금도 그 곳에 가면 지극히 러시아적인 과거 권력의 흔적들과 더불어 못물처럼 들이닥친 서구사회의 모습이 공존하는, 아주 흥미로운 광경들을 만날 수 있다.

### 지리

동경 19, 서경 169.5, 북위 44°- 82°사이에 위치해 있는 러시아의 영역은 북동유럽에서 우랄 지역을 거쳐서 시베리아와 극동 지방에 이른다. 이 같이 영토가 넓기 때문에 동서 두 지점 사이에는 11개의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다. 총면적은 17,075,400km<sup>2</sup>로 한반도의 77배, 미국의 1.8배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여러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서쪽으로는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북쪽으로는 노르웨이, 핀란드, 남쪽으로는 중국, 몽골,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터키, 동쪽으로는 북한과 접하고 있다.

### 사회 문화

전체 인구는 약 150,000,000명으로 100여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인구의 81%가 러시아인으로 가장 많으며 4%의 타타르인, 3%의 우크라이나인과 그 외의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용어는 러시아어이나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도 통용된다. 러시아인의 대다수는 그리스정교를 믿고 있으며, 이외에도 소수지만 이슬람교, 불교, 유대교 등을 믿는다. 그러나 이교적(민속신앙)인 신앙이 기독교와 결합된 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의 신앙을 이중 신앙으로 보는 경우도 많다.

### 기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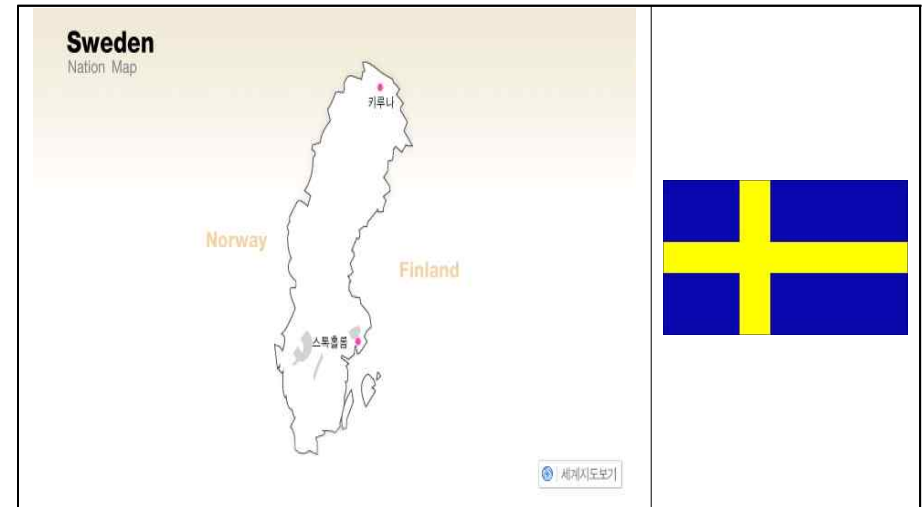
러시아의 경우 봄, 가을은 짧은 대신 겨울은 보통 10월이면 시작되는데 한 겨울에는 보통 아침 8시나 되어야 해가 뜨고 오후 4시경이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봄이 오는 4월 중순 무렵까지는 거의 매일 길가에 쌓여져 있는 눈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발달된 기계, 차량까지 동원하여 매일 부지런히 눈을 청소하기 때문에 차량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다. 반면 6월부터 시작되는 여름에는 모스크바 등 북구 도시에서 백야현상이 나타나는데, 밤11시가 지나서야 해가 지기 시작하고 해가 지고 난 어스름한 새벽에도 길을 다니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정도로 밝다. 햇볕은 따갑지만 습기가 없어서 더운 건 그리 못 느낀다.

### 통화

러시아 화폐단위는 루블(ROUBLE ; RUB)이다. 1루블은 100코페이카이다. 1, 5, 10, 50, 100루블(P) 주화와 100, 200, 500, 1000, 5000, 10000, 50000, 100000루블(P) 지폐가 있다. 코페이카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사실상 유통되지 않고 있다. 타지키스탄을 제외한 구소련의 다른 자치공화국들은 독립적인 통화를 발행하고 있다.

※ 1유로 = 약 30 RUB, 러시아 1루블 = 45원(2004.7월 기준)

## 2. 스웨덴



스웨덴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은 9세기경으로 바이킹의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이다. 11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독립국가를 이루었다. 한때는 스칸디나비아의 강국으로 핀란드와 노르웨이를 지배하기도 했었다.

- ◆ 수도: 스톡홀름(Stockholm, 167만명)
- ◆ 인구: 약 900만명
- ◆ 면적: 449,964 km<sup>2</sup> (한반도의 2.4배)
- ◆ 주요도시: 요테보리(Goteborg), 말뫼(Malmoe)
- ◆ 주요민족: 북게르만족(95%), 랩족(0.2%)
- ◆ 주요언어: 스웨덴어, 소수민족어(랩어, 핀란드어)
- ◆ 종교: 루터교(95%), 카톨릭(1.5%)

현재는 타 북유럽 국가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중립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제체제는 혼합경제로 사유재산의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동시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소유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 정부의 개입으로 개인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있으며 주로 쓰이는 방법은 세제와 저소득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이다. 따라서 세제부담이 상당히 크며 세금의 일부는 양로연금, 가족수당, 주택수당, 학비수당, 의료서비스 등으로 다시 개인에게 환원된다.

농업이 발달해 있으며 주요 농산물은, 소맥, 사료, 감자, 사탕무 등이다. 또한 면적이 23만 3천km<sup>2</sup>에 달하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총 2,900km에 이르는 해안선에도 불구하고 기후와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수산업은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 지리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은 449,964km<sup>2</sup>로 한반도의 두 배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동서의 길이는 499km, 남북의 길이는 1,574km로 가늘고 긴 국토를 가지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산맥을 경계로 노르웨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북동부로는 핀란드와 접하고 있다. 스웨덴의 국토는 대부분이 바다와 접해 있으며, 동부는 발트해와 보트니아만, 서남부는 스카레가르와 카테카트 해협, 남부는 외뢰순 해협이 위치해 있다.

유럽에서 네 번째로 큰 국토를 지니고 있으며 삼림지대가 전국토의 50%, 경작지가 10%, 호수와 하천이 9%, 기타 31% 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호수도 96,000여개에 달한다.

### 기후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동일 위도에 위치하고 있는 타 지역보다 온화한 기후를 보인다. 북부의 노르란드 지역은 1년 중 6 개월 동안 눈에 덮여 있으며, 여름의 평균기온은 14.7℃, 겨울의 평균기온은 -12.8℃로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게 된다. 또한 6월부터 7월까지의 백야현상으로 수주일에 걸쳐 태양이 24시간 지속되기도 한다. 스웨덴 국토의 7분의 1이 북극권에 속한다. 이에 비해 남부지역은 겨울이 짧으며 날씨도 대체로 온화하다. 여름의 평균기온은 16.6℃, 겨울의 평균기온은 -0.6℃이다. 연강수량은 500~750mm로 남동부의 발트해 연안과 북부의 노르란드 내륙지방은 강수량이 300~400mm로 적은 편이나 서남부의 노르웨이 접경 고산지대는 약 2000mm로 많다.

### 사회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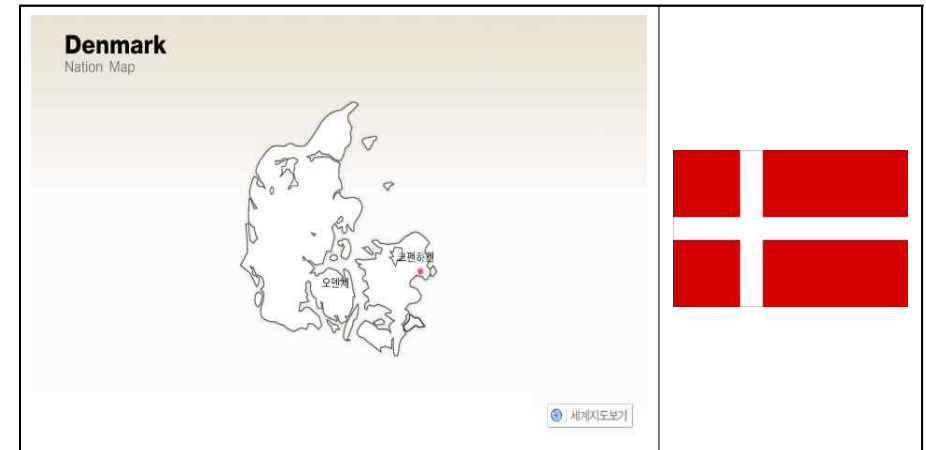
스웨덴의 인구는 약 900만명으로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중의 하나였으나 80년대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젊은 노동인력의 부족으로 외부 이민을 받아들였으며 2차 대전 이후에는 약 70만명의 외국인이 이주하여 정착했다. 70만명중 약 50%는 핀란드인이며 나머지는 노르웨이, 덴마크, 동구 및 기타지역의 이민자들이다. 전체 인구의 95%가 스웨덴인이며, 이외에 우랄 알타이어계에 속하는 핀족 약 2만명이 북부 국경지대에 거주하고 있다.

스웨덴인은 게르만족의 한 갈래로 다른 인종과의 혼혈 정도가 적으며, 북부 지방의 소수 토착민인 랩족을 제외하면 북게르만어파의 일종인 스웨덴어를 사용한다. 스웨덴어 외에도 영어와 독일어도 널리 쓰인다. 매우 적극적이며 합리적인 국민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이익에 대한 협력성은 강하나 개인생활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성향을 보인다.

### 시차

한국보다 8시간 늦으며, 3-9월간의 서머타임 실시 기간에는 7시간 늦다.

### 3. 덴마크



덴마크는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자연만큼은 풍요롭고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안데르센과 낙농의 나라로 알려진 덴마크는 약 406여개에 달하는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서양 북부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섬 그린란드와 영국 북쪽의 파로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 ◆ 수도: 코펜하겐(Copenhagen, 약 137만명)
- ◆ 인구: 약 525만명
- ◆ 면적: 43,094 km<sup>2</sup>(한반도의 1/5), 자치령 그린란드 및 페로제도 제외
- ◆ 주요도시: 올북(Aalborg), 오후스(Arhus), 오텐세(Odense)
- ◆ 주요민족: 북게르만계의 데인족(Danes)

- ◆ 주요언어: 게르만계의 덴마크어(국민대다수 영어 구사 가능)
- ◆ 종교: 루터복음교(국교, 88%), 카톨릭, 침례교, 유대교
- ◆ 정치형태: 내각책임제

국민 520만명 중 약 5분의 4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바이킹의 후예인 덴마크인들은 오늘날 낙농과 공업 디자인 등으로 부를 축적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구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평등의식을 심어주어 계급의 차이가 적은 평등·자유·복지의 사회를 이룩하게 만들었다. 덴마크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왕국의 유물들이 산재해 있으며 바로 이런 것들이 이 나라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 지리

총면적은 4만 3,000km<sup>2</sup>로 동쪽은 외레순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북쪽은 노르웨이, 유틀란트 반도의 남부는 독일과 접하고 있다.

유럽 대륙의 중북부에 위치해 있는 덴마크는 유틀란트 반도와 핀섬, 셸란섬, 보른홀름 섬 등의 주요 3개의 섬을 주축으로 총 405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북유럽에 위치해 있으면서 유럽본토와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스칸디나비아 국가이다.

#### 기후

멕시코만류의 영향으로 온화하나 연중 바람이 많고 겨울에는 기후 변화 심하다. 2월 평균기온 영하 0.4도, 7월 평균기온 16.6도이며, 연평균 강우량은 664mm이다.

#### 사회, 문화

덴마크의 인구는 약 530만명으로 덴마크어가 공용어이며, 타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언어와 영어가 통용된다. 주요 종교는 프로테스탄트로 덴마크인의 생활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낙농의 나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현재 낙농이 덴마크의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7%로 아주 미비한 편이며, 공업 디자인 부문이 주목을 받고 있다.

#### 시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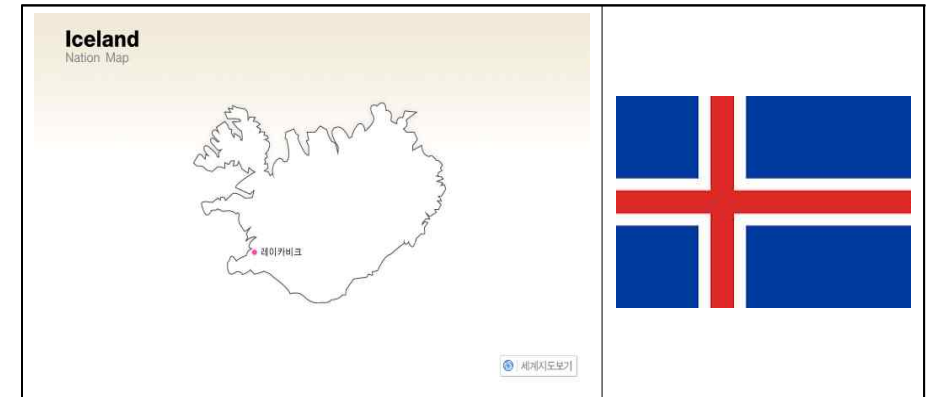
한국보다 8시간 늦으며, 3월부터 9월까지의 서머타임 실시기간에는 7시간 늦다.

#### 통화 / 환전

덴마크 크로네(Danish Krone)를 사용하며 Dkk로 표기한다. 1크로나는 100외레(Ore)이며, 지폐는 1,000, 500, 200, 100, 50 크로나로 구분되며 동전은 20,10, 5, 2, 1크로나 50, 25외레(Ore)가 있다.

환전은 공항, 은행, 시내환전소 등에서 가능하다. 공항, 중앙역 소재 은행 (Den Danske Bank)은 주말 외에 영업시간 이외에도 이용 가능하다. 공항이나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호텔이나 시내환전소 보다 유리하다. 시내 환전소의 경우 매도환율을 매입환율인 것처럼 높게 게시해 놓고 손님을 끌고 있으나, 실제로는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여 가능한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좋다.

#### 4.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의 면적은 103,000km<sup>2</sup>로 한반도의 약 1/2정도이며 여러개의 작은 섬과 하나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이슬랜드는 노르웨이와 그린란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위 63°15' ~ 66°30' (북극권)에 걸친 남북길이가 약 350km이고, 서경 13°45' ~ 24° 15' 에 걸친 동서길이가 약 540km이다. 아이슬랜드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 국가는 남동쪽으로 800km 정도 떨어진 영국의 스코틀랜드이다.

- ◆ 수도: 레이카비크(Reykjavik: 10만명)
- ◆ 인구: 약 27만명
- ◆ 면적: 103,000 km<sup>2</sup> (한반도의 약 1/2)
- ◆ 도시: 코파보규르(Kopavogur), 아큐레이리(Akureyri), 호르나피요듀르(Hornafjardur)
- ◆ 민족: 노르웨이 바이킹족 및 켈트족
- ◆ 언어: 아이슬란드어
- ◆ 종교: 루터복음교

## 기후

기후는 열대성·북극성 기후, 그리고 멕시코 만류와 동그린란드 극해류의 영향을 받는다. 동그린란드 극해류를 따라 때때로 북극 유빙이 아이슬랜드로 밀려오지만, 멕시코 만류가 그 영향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같은 위도상의 다른 나라보다 훨씬 기후가 따뜻하다. 겨울은 길고 춥지만 극한적인 추위는 없고 여름은 겨울보다는 따뜻하지만 여전히 추운 편이다. 내륙 산악지역을 제외한 7월 평균기온은 11℃ 정도이며 1월 평균기온은 0℃이다. 연평균강수량은 남동지역의 4,100mm 이상으로부터 중북부지역의 406m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사회문화

인구의 반 이상이 레이카비크 그 주변지역에 살고 있으며 섬 중앙부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93년 12월 현재 인구는 26만 4,000명이며 인구밀도는 2.5명 /km<sup>2</sup>이다.

아이슬랜드의 국민은 매우 동질적인 집단이며, 그들의 정확한 기원과 민족적 구성에 대해서는 역사가들마다 주장이 다르지만 60-80%가 순수 북방혈통으로 대부분 노르웨이에서 왔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온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켈트족 혈통이다. 주요민족은 놀드족과 덴족이다.

종교는 16세기 중엽 이래 루터교가 지배적인 종교여서 국민의 97%가 국교인 복음루터파이다. 국민의 대부분이 루터교 복음파이다.(루터교 복음파 93%, 기타 7%).

공용어로 아이슬란드어를 사용하며 인종은 아이슬란드인 97%이 대부분을 차지한다.(아이슬란드인 97%, 기타 3%) 공용어는 옛 노르웨이어에 가까운 아이슬란드어이며 기타 주요언어로 덴마크어가 있다. 문맹율은 1% 정도이다.

국민성은 상당히 자유분방한 편이며 아이들의 55%가 사생아이다. 아이슬란드인들은 일주일에 54 - 56시간씩 일을 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하는 근면성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물건을 싸게 사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친분 관계를 이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열렬한 순수 혈통주의자인 동시에 전통주의자적인 면을 보이며 남자 바이킹들이 문화를 지배하고 있지만, 여자들도 자신들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고 결혼 전의 이름을 계속 가지고 있다.

교육은 모두 무료이며, 7~15세 사이에는 의무교육을 받는다. 중등교육으로 영어와 덴마크어에 중점을 두는 문과학교와 기술에 중점을 두는 기술학교가 있다. 그 상급학년으로 고등학교·사범학교·농업고교·상업고교·항해학교·무선학교·기계학교 및 기타 특수학교가 있고, 대학이 교육의 정점(頂點)이다. 국립·대학·시립·지방 도시설립 도서관이 많고 사설도서관도 있다.

신문은 일간지가 5종이며, 그 밖에 3개의 주간지와 약간의 지방지가 있다.

라디오 방송은 1930년부터 시작되었고, TV 방송은 1966년에 시작되었으며, 출판활동도 매우 활발하다.

국민은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 문학·회화·조각·건축·음악·연극 등에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있다. 특히 문학에는 많은 전승문학이 있으며, 중세의 시인 스노리 스톨루손은 북유럽 신화와 영웅담 등을 모아 《에다》(1,200년경)를 편집하였다. 또 현대의 작가 H.K. 락스네스는 1955년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AD 1180년부터 1300년까지 쓰여진 대부분의 대하소설 사가(Saga)는 아이슬랜드의 가장 잘 알려진 문학 장르이다. 사가는 노르웨이계통의 세계에서 현존하는 작품들 중에서 비교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사가는 노르웨이와 아이슬랜드의 역사와 혈통을 바탕으로 A.D. 1100년까지의 노르웨이계 생활 모습을 보여준다. 사가 작가들은 영웅들의 성공, 영광, 용기의 미덕, 자부심, 명예 등을 기록하기 위해 전국을 찾아다녔으며 후기 사가 작품들은 초기 아이슬란드 정착민의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이슬랜드의 미술은 음악과 달리 19세기 이전에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주민의 수가 적었고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기 때문이다. 아이슬랜드의 가장 유명한 화가는 아그리머 존슨(Agrimur Jonsson), 존 스테판슨(Jon Stefansson), 요하네스 칼발(Johannes Kjarval)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 20세기 전반에 활동한 화가들이다. 가장 잘 알려진 현대 조각가는 아스문더 스베인슨(Asmundur Sveinsson)으로 그의 작품 대부분이 아이슬랜드의 전래 민요나 사가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다.

## 정치

1944년 6월 17일 덴마크로부터 독립하면서 제정된 헌법에 의하면 아이슬랜드는 명목상의 대통령을 둔 내각책임제이다. 국회는 임기 4년의 63석으로 구성된 단원제이다. 임기 4년의 대통령은 연임을 제한하지 않으며, 1996년 8월 올라뤼르 그나르 그림손(Ólafur Ragnar Grímsson)이 취임한 뒤 2009년 현재 네 번째 임기를 맡고 있다. 2006년 집권 독립당과 사회민주당이 연립정부를 이루다가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9년 연정이 붕괴되고,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임시 연정을 이루어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Jóhanna Sigurðardóttir)가 총리가 되었다. 2009년 4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연정이 63개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처음으로 좌파 정당이 집권하게 되었다. 대법원과 8개 지방법원이 있고, 법관은 법무장관이 임명한다.



재정은 세출의 중심을 다른 북유럽 여러 나라와 같이 교육과 사회보장에 두고 있다. 이밖에 도로·교량·통신·어업·상업 등에 대한 세출도 많다. 육해공군은 없으나, 어선을 위한 무장경비정과 초계기를 보유하고 있다. 1949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였으며, 세계의 전략적 위치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케플라비크에 대규모 공군 기지가 있다. 어업입국이라는 국시(國是)에 따라 1975년에 어업전관 수역을 200해리로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영국과의 사이에 '대구 전쟁'이 일어났으나 결국 영국의 승인을 받게 되었다. 2001년 3월 쉥겐조약(Schengen Treaty)에 가입하여 여행이 자유롭다.

**시차**

GMT-1로 우리나라보다는 10시간 느리다. 즉 우리나라시간으로 낮 12시이면 아이슬랜드에서는 새벽 2시이다.

**통화**

통화단위는 Krona(크로나)이다.

**5. 벨기에**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는 벨기에는 관광국으로 또한 유명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SHAP), 유럽위원회 및 유럽연합 회의 등의 세계 유명기구가 위치하고 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과 함께 서유럽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방 국가를 이루고 있는 나라이다.

- ◆ 수 도: 브뤼셀(Brussels, 99.7만명)
- ◆ 인 구: 약 10,419,000명(2005년 기준)
- ◆ 면 적: 약 32,545km<sup>2</sup> (경상남북도크기)
- ◆ 주요도시: 안트워프(Antwerp), 리에즈(Liedge), 강(Ghant), 몽스(Mons)
- ◆ 주요민족: 플라망족(55%, 화란어 사용), 왈롱족(44%, 불어사용)
- ◆ 주요언어: 북부 화란어, 남부 불어(브뤼셀에서는 두 언어 공동사용),독일어
- ◆ 종 교: 로마카톨릭(80%)

**기후**

벨기에는 해양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으나 지역별로 대륙성 기후를 보이는 곳이 있다. 는 해안을 끼고 있어서 해양과 접해있는 영국의 남동부지방과 비슷한 해양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으나 Ardennes지역과 같은 곳은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연중 비가 많이 내리며, 여름에는 일교차가 크고 춥다.

**사회문화**

사회복지는 1944년에 생긴 사회복지국(社會福祉局)에 의해서 운영되며 노동자의 유급 휴가나 노인연금·실업수당·공중위생 등에도 용의주도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취업률은 61.7%로서(2004년) EU 평균 64.6%에 이르지 못한다. 수준 높은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구조적 실업 문제에 기인하며, 주로 지식 집약적 산업 분야에서 고용창출이 이루어져 노동시장의 구조 조정 면에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벨기에는 명목상으로는 1831년에 탄생한 신홍국가이지만, 로마시대부터 존속해온 게르만·라틴 양계의 복잡하게 얽힌 문화가 주민의 교양을 함양시켜 우아하고 세련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수세기에 걸친 전란의 역사는 도시 단위의 자위적 자치조직을 형성하여 인트라 무로스(성벽의 안쪽)라고 불리는 대소의 도시가 각기 개성이 풍부한 공동체로서 존속한다. 중세 이래 모직물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경제적 번영과 함께 왕후귀족과 부유 상인을 후원자로 하는 예술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벨기에에서는 만화의 인기가 높는데, '스머프'와 '탱탱(Tin Tin) 시리즈'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다.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축구로서 벨기에는 세계적인 축구강국이다. 사이클이나 수영 등도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 벨기에는 여러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국제문화교류에 기여하고 있다.



## 시차

한국과의 시차는 한국이 8시간 빠르다. 4월부터 9월중의 일정기간에는 서머타임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 시간 중에는 한국이 7시간 빠르다.

## 통화

유럽통화가 유로화로 바뀌면서 벨기에도 유로화를 사용한다.

유로화 (1유로 = 약 1300원)

동전: 1센트, 2센트, 5센트, 10센트

지폐: 5유로, 10유로, 20유로, 50유로, 100유로, 200유로, 500유로

## 6. 룩셈부르크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룩셈부르크는 유럽 내에서는 작지만 강한나라로 통한다. 농업에만 편중되던 산업이 철강 산업이 발달하면서 유럽 철강 산업의 중심이 되었다. 더불어 관련 산업이 발달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지는 등, 현재는 유럽의 많은 회사들이 진출해 있다. 현재는 금융의 중심지로서 수많은 은행과 투자회사들이 진출해 있다.

- ◆ 수도: 룩셈부르크(Luxembourg, 8만명)
- ◆ 인구: 468,571명(2005년 기준)
- ◆ 면적: 2,586 km<sup>2</sup> (제주도의 1.5배)
- ◆ 주요도시: 브라쇼브(Brasov), 티미소아라(Timisoara), 콘스탄짜(Constanta)

- ◆ 주요민족: 게르만족
- ◆ 공용어: 불어(공용어), 독어, 룩셈부르크 방언
- ◆ 종교: 카톨릭(97%), 개신교 (1%)
- ◆ 위치: 유럽서부, 북서부는 벨지움, 남부는 프랑스, 동부는 독일에 인접
- ◆ 교육: 의무교육 9년
- ◆ 기후: 온대성 기후
- ◆ 언론: 신문 Luxembourg Wort, Le Republicain Lorrain TV RTL, 라디오 RTL정치
- ◆ 국가성립: 1840년 네덜란드의 지배로부터 완전 독립
- ◆ 국경일: 6.23(국가원수 생일)

## 경제

국내총생산: 176억불(1인당 GDP 41,009불,2000년)

중점경제정책: 금융산업 집중육성

화폐단위: Euro(1 Euro=\$0.89, 2002.1)

주요자원: 철, 석탄

교역(2000): 수출 81억불, 수입 104억불지리

## 지리

동쪽에는 독일, 북서쪽에는 벨기에, 남서쪽으로는 프랑스가 위치하고 있는 유럽 주요 국가와 인접한 지리적 위치로 3~4시간이면 유럽 주요 도시들인 파리,프랑크푸르트,암스텔담등과 접근이 용이하다.

북쪽에는 산림과 농경지가 남쪽에는 광산이 발달되어 있으며 포도재배지가 많으며 광산에서 나오는 철광석으로 철광 산업이 발달되었다.

## 역사·정치

룩셈부르크는 963년에 지그프리트(Siegfried) 백작에 의해 건국되어, 1443년까지 백작령 및 공작령으로 존속되어 오다가 1443년 부르군디(Burgundy) 공작에 의해 점령당한 뒤, 1815년까지 지배를 받았다. 1815년 빈회의에서 룩셈부르크의 지위가 종전의 공국에서 대공국으로 승격되는 동시에 독립이 부여되었으나, 네덜란드 국왕이 대공을 겸하게 되고 프러시아 군대가 주둔하게 되어 네덜란드와 프러시아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1867년 1월 1일 독립하여 런던조약에 의해 영세중립의 지위를 얻고 프러시아 군대가 철수하였으며, 1868년 10월 17일 헌법을 제정하였다. 1890년에 네덜란드 왕 윌리엄(William) 3세가 후계자 없이 사망함에 따라 독자적 왕가를 가지게 되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때는 독일에 점령당하는 비운을 겪기도 하였다.

룩셈부르크의 국가권력은 삼권분립에 의해 행사되나 입법과 행정의 분립은 여타 국가에 비해 불분명한 편이다. 대공은 국가원수로 수상 및 각료를 임명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도좌파를 자처하고 있고, 1945년 유엔에 가입하였다. 1867년 런던회의에서 영세중립국이 되었으나 1948년 이를 포기하였고, 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력을 기조로 하여 유럽의 통합을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의 하나로 삼고 있다. 또한 베네룩스동맹을 통해 네덜란드·벨기에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 시차

서유럽 여타 국가와 같이 우리보다 7시간 늦으며 썸머타임때(3월부터~10월까지)는 8시간 늦다.

### 통화

EU가 출범하면서 유로화를 쓰고 있다.

## Ⅲ. 방문국 교육제도

### 1. 러시아의 교육제도 개관

#### 가. 러시아 교육의 특징

- 1930년대에 설립된 소련의 교육제도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구조는 러시아 연방에서도 지속되며, 모든 교육은 의무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연금 또는 최저임금수준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학비를 받기 시작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 또한 내국인들과 외국인의 학비는 확연한 차이를 두고 있다.
- 의무교육기간 : 8년(일주일에 6일, 하루 5~6시간 수업)
-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아동들은 6~7세에 정규교육기관에 취학하여 의무교육기간이 끝나는 8학년(초급학교 4년과 중학교 4년)까지는 동일한 교육을 받는다. 9학년부터는 일차적인 진로선택을 하는데, 일반 고등학교과정(2년 과정)을 계속하거나, 일반학과 이외 특정 분야의 기술교육을 병행하는 기술학교(제호니쿰, 3~4년 과정)로 진학하거나 한다. 대체로 제호니쿰 졸업은 일반 고등학교 졸업에 비해 선호된다. 그밖에 재능이 우수한 학생이나 박약아 또는 신체장애자를 위한 특수학교와 군사학교가 있다
- 과목 : 러시아어와 과학에 편중(외국어에 대한 선택을 제외하고 모든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 고등교육과정에서도 처음 2년간은 제한적인 선택권 안에서 필수 과목을 의무적으로 마쳐야 다음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 시험: 연말에 실시(불합격자는 그 학년 재수강)
- 학점: 5(A)~1(F)의 순으로 평가
- 고등학교 졸업시험 : 출제된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증명서 발부된다.
-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에는 선택권이 주어지며, 대학응시자는 의무적으로 입학시험 응시 해야 하며, 학교의 명성에 따라 난이도 차이가 있고 경쟁이 치열하다.
- 특수학교
  - 초, 중, 고등학교 과정에서 재능이 있는 학생이나 박약아 또는 신체장애자를 위한 특수학교와 군사학교가 있다.
  -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수학, 자연과학을 중점 지도하는 특수학교에서 수학하도록 하며, 수업의 반수 이상을 외국어로 진행시키고 있다.(명성이 높아 상급학교 진학시 우수한 학교를 선택하기 쉽다.)
  - 군사학교는 15~17세의 남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로 일반 의무교육과 함께 기초 군사교육을 실행하며, 이는 장교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학생들이 준비하기 위한 기초 과정이다.
- 특수기관 : 장애자를 위한 학교
  - 장애자 학교는 정신박약 또는 신체장애자를 위한 학교이며 지체 부자유자를 위한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다. 병리학적 저능아의 경우 특수 훈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에 입학하며, 이 학교는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시설도 갖추고 있다.

#### 나. 학령 전 교육

- 탁아소(1~3살)
- 유아원(3~6살)

#### 다. 쉬콜라

- '쉬콜라' :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보통 10년을 포괄하는 의미다. 초등교육은 보통 7세부터 12세까지 6년간 이루어지고 있다.
  - 교육 형태 : 일반적인 초등학교와 예능, 외국어 분야 등 영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학교 및 장애자 학교, 기술학교 등이 있다. 보통은 수업 단계와 수업 연한에 따라 분류한다.
- 10년 중에서
  - 초등학교는 제1수준으로 3~4년
  - 중등학교는 제2수준으로 5년

- 고등학교는 제3수준으로 2 ~ 3년
- 러시아의 공립학교는 명칭 대신 아라비아 숫자.
  - 예를 들어 '1,086번 학교'는 11년제 학교, '652번 학교'는 10년제 학교(동일 캠퍼스 내에 제 1,2,3수준학교가 있음)
- 일반 중등교육 기관수: 총 66,700개
  - 초등학교는 25%, 중등학교는 23%, 종합중등학교가 52%
  - 학생 수: 약 2천만명 정도
- 일반 중등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 고등교육기관: 30%
  - 진학: 55%
  - 직업훈련: 15%
  - 나머지는 야간이나 공공봉사교육기관에서 직업과 학업을 병행. 이중 20%가 심화 특수학교에서 중등교육을 받는다.

#### 라. 기술학교

- 상업학교(9-10학년과 동일)
- 기술학교(상업학교와 전문대학과 동등, 3-4년)
  - 고등학교 마지막 2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일반교육에 엔지니어링, 경제 계획, 의학, 농학, 또는 교육에 대한 특수훈련을 실시하며 보통"테흐니쿰"으로 불린다.
  - 기술학교에 입학키 위해서는 8년간의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학위증을 소지한 자는 그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전공분야에 따라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선호되기도 한다.

#### 마. 상급교육기관

- 전문 기술학교(의학, 엔지니어링 등)
- 종합 대학(4-5년), 예비학교 1년(외국인)

#### □ 유치원 과정

- 7세 이하 아동은 입학할 수 있고, 유아반, 유치반 등 연령별로 구분 운영하고 있다.
- 지역 내 해당 학교의 유치원에 무상입학 가능하나, 최근 학비를 징수하는 유치원이 증가하고 있다.
- 유치원은 독립된 유치원으로 운영되는 형태와, 초·중등학교(11학년 과정)에 병설·운영되는 형태가 있다.

#### □ 초·중등과정

- 일반적인 초·중등학교와 예능·외국어분야 등 영재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학교 및 장애우학교, 기술학교 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1학년부터 11학년제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 6~7세에 의무교육을 시작하여 17세 전후에 고교 졸업이 일반적이다. (초등학교 4년, 중등학교 5년, 고등학교 2년)
- 졸업반 학생들은 졸업하는 해 5 - 6월경 보통 2-3주간에 걸친 졸업시험에 통과하여야 하며, 졸업시험 성적은 대학입학 전형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 영재육성 목적의 특수학교는 수학, 과학, 예능, 외국어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예: 미술학교, 음악학교)로서 해당 분야의 우수학생들이 입학한다.(주로 모스크바 등 대도시에 소재하며, 명성이 높아 대학 진학 시 명문대학교 선택에 유리)
- 장애우학교는 정신박약 또는 신체장애자를 위한 특수학교이다.
- 중등직업기술학교는 2-3년 과정의 농·공업 분야 기술 또는 약100여개 직의 전문 기술을 지도하며, 일반학교 8학년을 이수한 학생들이 진학한다.(졸업 후 최소한 직장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대학과정

- 대부분 대학의 수학년한은 5년이며, 최근 모스크바대학 등 다수 대학들은 대학과정 4년, 석사과정 2년제를 새로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학은 4년제, 5년제 학사과정을 스스로 결정하여 운영할 권한을 갖고 있다. 4년제 대학을 마친 경우 학사학위(B.A), 5년제 대학을 마친 경우 스페셜리스트(specialist) 학위(준석사과정에 해당)를 수여받는다. 준석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한국의 대학원 석사과정에 일반적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또한 러시아의 독특한 교육전통에 따라 전문분야(예, 음악 등)의 경우 학위 명칭을 다양하게 부르고 있어 유학 시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외국유학생은 러시아어 연수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어, 한국에서 대학을 수료(학사)한 경우 석사학위를 받으려면 보통 어학연수 1년, 석사과정 2년 등 3년 정도가 소요된다.
- 대학의 형태는 종합대학(University)과 계열별로 특성화된 단과대학(Institute와 Academy)으로 구분되며, 종합대학은 지역별로 주요 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종합대학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기초인력을 양성하고 단과대학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전문분야별로 특성화가 잘 되어 있다.(단과대학이 종합대학에 비해 수준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님)
- 정부에서 대학 설립, 졸업장수여권한, 입학정원 등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어 명문

대학 인기학과(경영, 경제, 법학) 입학의 경우, 고교과정부터 입학전형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학의 재정보조 필요성과 맞물려 기부금 입학이 실시되기도 한다.

□ 대학원 이상 과정

- 대학원과정은 주로 개인연구(independent study)중심으로 진행되므로 학생 스스로 독자적인 연구계획을 짜서 공부에 임해야 하며, 3-4년간의 대학원 과정("아스피란트")을 이수한 후 종합시험, 논문을 통과하게 되면 준박사학위("칸디다트", Ph.D)를 수여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준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박사학위로 통용된다.
- 칸디다트 이후의 학위는 "Doctor"학위로서 Post-Doc.과정에 해당되며, 오랜 기간 직장에서의 전문 연구활동을 거친 후 대개 40세 이후에 수여 받게 된다.

2. 스웨덴의 교육제도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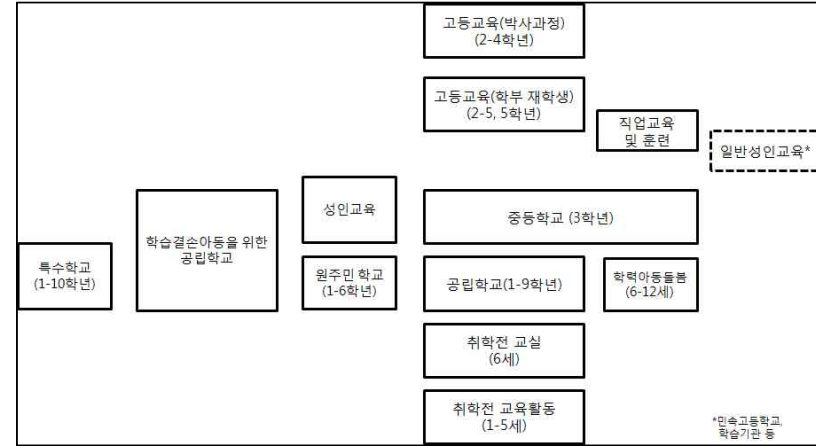
□ 개황1)

- 인종과 사회적 출신성분에 상관없이 성장기에 있는 모든 어린이와 젊은이는 동등하게 교육받아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 교육의 기본방침임
- 스웨덴의 교육과정은 종합학교, 후기중등교육,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단일체계 하에 운영된다는 것이 특징이고 의무교육 9년 동안은 국가의 재정으로 지원되며 수업료는 없음.
- 고등학교·대학교 및 성인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정 지원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부 관할 하에 있으나, 농과대학은 농수산부가 관할하고, 고용연수는 노동부가 책임을 짐.
- 스웨덴의 교육시스템은 초등학교 과정 9년(종합학교), 중등학교 과정 3년, 그 이후는 대학 등의 고등교육과정이며 만 7세부터 시작하여 의무교육은 전액 정부에서 부담하고, 대학, 대학원의 모든 공립학교는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음.
- 초등과정에 준하는 종합학교는 9년으로 하급반(1~3학년), 중급반(4~6학년) 상급반(7~9학년, 우리나라의 중학교)으로 나뉘고 7학년(우리나라의 중학교 1학년)부터 학생들의 관심과 학업 성취능력을 기초로 한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짐.
- 현재 더 광범위하고 심화된 직업 교육과정이 1995/96학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에 도입되어 시행되는 중이고 16개 공통 교육과정 중에서 14개는 직업계 교육과정이며, 나머지는 2개는 인문계 교육과정임.
- 군 지방자치당국은 정상적으로 고등학교에 다닐 수 없는 학습장애인과 정신장애

1)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2005). The Swedish School System.

인을 위한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기간은 4년으로 총 학습시간은 3,600시간이며, 20세 이전에 시작해야 함.

- 20세 이상의 성인은 성인교육에 마련된 이와 유사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되는데 학습시간의 15%는 회사에서의 현장연수로 대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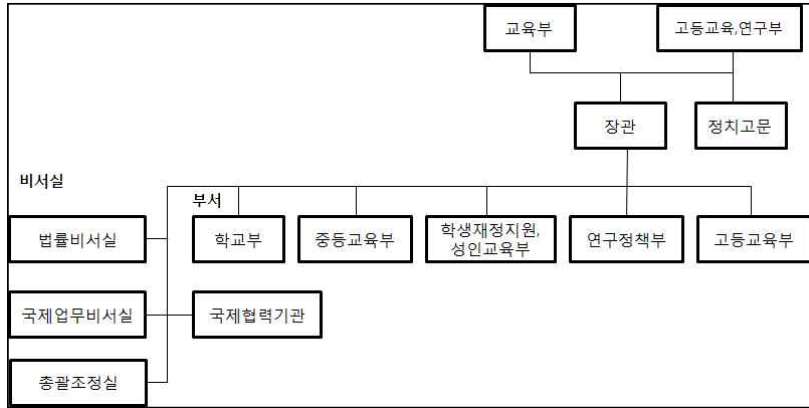


[그림 2] 스웨덴의 교육제도2)

□ 교육부

- 스웨덴 교육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법에 따라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성별, 인종, 사회적 경제적 배경 등에 상관없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임.
- 스웨덴의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는 교육부문과 연구부문의 두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교육연구부는 아동 돌봄, 취학전 학습, 초등학교, 사립학교, 학령아동 돌봄, 중등학교, 성인교육, 직업교육, 보충교육 프로그램, 대학 및 고등교육 시스템, 연구, 학생 복지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이슈에 책임지고 있음.

2) 전인식(2003). 유럽의 교육현황과 주요개혁, 한국교육개발원.



[그림] 스웨덴 교육연구부 조직

#### □ 교육제도의 변천

- 스웨덴이 의무교육제도를 발족시킨 때는 1842년으로 대단히 빠른 편이고 19세기 초에 북구제국들이 비록 경제적으로는 뒤쳐져 가난하였지만 민중교육에 있어서는 선진적이어서 의무교육 재정을 확보함.
- 재정적인 면이나 행정적 능력 면에서 전혀 의무교육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였고 학교제도가 사회계급을 그대로 반영하는 복선형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음.
- 시민계급을 위한 초등학교에 연결되는 직업학교나 국민고등학교와 같은 계속교육 기관의 계통과, 지배계급을 위한 사립예비학교에 연결되는 중등학교(Gymnasiet)와 이를 잇는 대학 계통으로 완전히 분리된 실정이었음.
- 산업화도 역시 전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끼쳤는데, 산업의 발달과 함께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활발해졌으며 이들 세력을 배경으로 한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산업은 급속하게 발달하여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가 급증해 보편적 부와 복지생활을 누리게 되었음.
- 교육에 있어서도 노동자 교육 외에 학교에 있어서의 의료, 급식, 장학금 등의 복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였고 이러한 사회 변화는 국가가 교육 전반을 계획, 운영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음.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웨덴의 교육개혁은 서구 여러 나라들의 모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193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복지국가의 건설이라는 국가목표의 설정과 함께 교육개혁이 시작되었음.
- 1940년에 정부는 교육개혁을 위한 조사연구를 행할 학교조사위원회를 임명하였고 이 위원회는 1947년까지 20권에 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교육개혁의 기초를 닦았음.

- 1946년에는 정당대표들을 중심으로 학교위원회가 임명되었으며 그 위원회는 1948년에 의무교육을 9년으로 연장하고 그것을 종합제학교로 운영하며, 실험적으로 1949년부터 실시하자는 것으로 국회는 그 답신을 수용하여 1950년에 실험 통일학교법을 통과시킴.
- 1957년에 교육개혁준비위원회가 임명되었고 1961년에 신 의무 교육제도의 실시안이 발표 되었으며 의회와 사회에서 끊임없는 격론이 벌어졌지만, 다음해인 1962년부터 새로운 9년제 기초학교(grundskola)가 발족되었음.
- 이것은 복선형학제를 유지하고 있던 많은 유럽국가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국가의 통합적 학교제도로 받아들여짐.
- 고등교육의 개혁과정은 1954년에 대학개혁위원회, 1955년에는 대학문제조사위원회가 임명되었지만, 개혁이 본격화된 것은 1963년 고등교육조사위원회의 발족과 1965년에 종합대학에 분교를 설치하는 고등교육의 지방분교화가 구상됨으로 시작됨.
- 1968년에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에 해당하는 대학입학자격시험(studentexamen)을 폐지하여, 고등학교재학 성적으로 진학하는 방식을 도입하였고. 1968년 중앙교육심의회(U68이라고 칭함)가 발표한 개혁안에 기초하여 1977년에 고등교육개혁이 실시되었음.

#### □ 교육법(The Education Act)

- 스웨덴 교육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와 청년은 동등한 교육권을 가지고 있음. 모든 아동은 성별, 거주지별, 또는 사회 경제적 요소에 상관없이 이 권리를 향유함. 이 교육법에는“학생들에게 지식을 제공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학생들의 조화로운 발달을 증진시킨다.”라고 되어 있음. 특별한 요구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배려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법에는 성인들의 교육권까지도 제시하고 있는데, 성인교육은 지역자치구를 통해서 제공되거나, 학습장애가 있는 성인을 위한 성인교육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 책임감과 관리(Responsibility and governance)

- 교육과정, 공교육 체제의 국가 목표와 가이드라인은 스웨덴 의회와 정부에 의해 제시됨. 다양한 지역자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금액을 연방 예산으로 마련하여 지역자치구에 제공함.
- 정부와 의회에 의해 마련된 목표와 틀 속에서 개별자치구는 지역의 학교 운영 방식을 결정하며, 지역의 학교는 재정, 조직, 발전, 그리고 학교활동 평가 계획을 세우고 채택함. 승인된 교육과정, 국가목표 그리고 지역 학교 계획을 이용하여 각

학교의 교장은 지역 작업 계획을 입안하고, 이러한 계획은 학교 교사와 다른 직원들과 상의하여 세워짐.

- 국가 교육부는 스웨덴의 공립학교 체제를 발전시키고, 평가하고, 추후활동, 장학 활동을 함. 교육부는 해마다 정부와 의회에 현재의 학교 체제에 대한 개략을 제시하고, 이것을 학교의 국가적 발달 계획의 기초로 삼고 있음. 교육부는 교육법의 규정들이 준수되고 개별 학생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것을 확인하는 장학 역할을 담당함

#### □ 학년(The school year)

- 학교는 일반적으로 8월말에 시작되고 다음해 6월초까지 약 총 40주간 운영되며 정규학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 운영됨. 2주간이 넘는 긴 휴일은 약 12월 20일에서 1월 초까지임.

#### □ 취학 전 교실(Preschool Class)

- 지역자치구는 아동이 6세가 되면 그해 가을에 시작되는 모든 어린이의 취학 전 교실을 위한 장소를 제공해야 하는데 취학 전 교실 프로그램은 연간 최소 525시간을 진행해야 하며, 각 어린이의 학습과 발달을 자극하고 지속적인 학교 교육의 기초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취학 전 교실을 구성하는 방식은 지역자치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대체로 의무 교육, 여가 센터, 그리고/또는 취학 전 학교와 연계되어 조직되고 설립됨.

#### □ 유아교육

- 산업화 이후 빈민아동과 기아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보육제도가 스웨덴전체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수행을 위한 공적제도도 단계적 발전
- 스웨덴에는 유아의 교육 및 보호를 위한 기관으로 유치원(preschool), 가정탁아(family day care), 시간제 집단(part-time group), 개방 유치원(open preschool)등이 있음.

##### <유치원>

- 유치원은 부모가 취업중이거나 학업중인 6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기관이며, 교육활동과 보호가 함께 제공됨. 유치원은 유아교육기관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6세 이하 아동의 38%가 이 기관에 등록되어 있음

##### <개방 유치원>

- 개방 유치원(Open Preschool)은 집에 있는 부모와 가정탁아 부모,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사회적·교육적 자극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시간 나는 대로 들러 활동할 수 있는 곳

##### <가정탁아>

- 가정탁아(Family DayCare)는 부모가 자신의 집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을 돌보는 것을 말하는데 부모는 자녀를 포함하여 최대 10명의 다양한 연령의 아동을 다양한 시간대에 돌보게 됨.

##### <시간제 집단>

- 시간제 집단(Part - time Group)은 종일탁아가 필요 없는 4~6세 아동을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취업하지 않거나 학업중이지 않은 아동과 가정탁아를 받고 있는 아동을 위한 것임.

#### □ 기초의무교육 (초등 및 하급 중등교육)

- 기초의무학교는 9년제로 되어 있는데 1~3학년의 하급부, 4~6학년의 중급부, 7~9학년의 상급부 등 3단계로 구분되어 있음. 하급 및 중급부는 종전의 초등교육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모든 아동이 공통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7~9학년에 해당되는 상급부는 실제로 중등교육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시기임.
- 기초의무학교는 7세가 되는 가을에 입학해서 16세가 되는 봄학기에 졸업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아동들은 공립학교에 다니며, 소수의 학생들만이 사립학교에 다님. 하급부 및 중급부에 다니는 대부분의 아동들은 걸어서 통학이 가능하도록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배치되며, 공립학교의 경우 부모가 임의로 다른 지역의 학교를 선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9년제 기초학교의 기본적인 목표는 가정의 사회 및 경제적 배경, 지역적 조건, 성별 및 신체적 조건을 초월해서 모든 아동 및 청소년들이 교육의 기회를 완전 무상화를 통해서 보장받도록 하는데 있음. 복지사회에 잘 어울리게 기초의무학교 교육은 일체 무상이며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용품비, 급식비는 물론이고 교통비도 지급됨.

#### □ 중등교육 (통합고등학교)

- 9년제 기초학교를 졸업하면 의무교육은 끝나며, 학생들은 상급학교인 통합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음. 중등학교로의 진학률은 1960년 이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통합고등학교 제도가 도입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고등학교의 종류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스웨덴에 있어서 고등학교는 오직 하나의 형태, 즉 통합고등학교가 있을 뿐임. 그러나 이러한 통합고등학교 체제의 도입은 오랜 기간의 논의와 연구를 거쳐 자리를 잡게 되었음.

- 1962년 9년제 기초학교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후, 고등학교 체제도 이에 영향을 받아 1964년에 전반적인 개혁이 있었음. 이 개혁에 의해서 중전의 인문계, 상업계, 공업계의 각각 독립된 고등학교를 하나의 형태로 통합하여 중합고등학교 체제로 개편하는 계획이 수립됨. 그 후 7년간의 연구와 실험 끝에 기존의 모든 고등학교를 합쳐서 하나의 통합된 중등교육체제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 체제는 1971년부터 스웨덴의 전 지역에 확대됨.
- 스웨덴의 이러한 통합고등학교가 나타나기 전까지, 고등학교는 세 종류, 즉 ①집나지움(Gymnasiet), ②전문학교(Fackskola), ③직업학교(Yrkeskola)로 구성되어졌으며 이 세 가지 유형의 학교는 교육수준, 학교에 대한 사회적 평가, 학생들의 사회적 배경, 그리고 그들의 사회 심리적 상태에 있어 극복하기 어려운 격차가 있었음. 이 중에서 사회적 지명도가 있고, 일반인들의 평가가 좋은 학교는 대학의 진학률이 높은 집나지움 계열의 학교임.
- 통합고등학교에는 22개의 교육과정 분야가 있는데 2년제 과정이 17개로 가장 많고, 3년제 과정이 4개, 4년제 과정이 1개로 되어 있음. 그 중 가장 많은 2년제 교육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인문, 사회 분야 : 소비, 간호, 사회, 음악 계열
  - 경제, 상업 분야 : 기술, 산업 행정 및 경제 계열
  - 과학·기술 분야 : 의류제조·건축기술·전기기계·자동차·농업·식품가공계열

#### □ 고등교육

- 고등학교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을 고등교육이라 하고 직업연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단과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교육은 1977년에 단일체제로 통합됨.
- 1989년까지는 정부가 모든 형태의 교육기관을 위한 교과과정을 정했으나 1991년의 주요개혁안이 1992년 의회에서 채택되고 1993년 7월 1일자로 새로운 고등 교육법령이 시행됨.
- 스웨덴에는 예테보리(Goteborg), 린세핑(Linkoping), 룬드(Lund), 스톡홀름(Stockholm), 우메오(Umea), 우살라(Uppsala)에 6개의 종합대학을 포함해 스톡홀름경제학교, 카롤린스카연구소, 샤를머즈 기술대학, 왕립기술연구소, 룰레오단과대학 및 기술 연구소, 스톡홀름 체육·스포츠 단과대학 등의 단과대학과 고등 교육 전문연구기관이 있음.
- 학생의 학교성적뿐만 아니라 일한 경험도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할 때 필요한 자격요건이 되며 총 33개에 달하는 종합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학비는 무료임.
- 스웨덴에서 모든 공교육은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며 교육과정 중에 있는 학생의 생활비는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음.

- 학생들의 1/3 이상(2002년에 43%)이 3년간의 중등교육을 마치고 고등교육 단계의 학업을 계속함. 대학과 고등교육 기관에서 학생들에게 특별한 프로그램과 개별화된 연구과정을 제공하며, 대부분의 대학과 고등교육 기관은 주에서 운영하고, 전국에 걸쳐 20개 이상의 도시나 지역에 산재되어 있음.

#### □ 성인교육(Adult Education)

- 모든 사람이 정규 중등학교에서 20세가 될 때까지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 후에는 지역자치구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성인교육 프로그램이 있음. 그 가운데는 지역자치 성인교육과 학습장애를 가진 성인을 위한 교육이 있음.
- 스웨덴의 성인교육에는 군 지방자치당국이 시행하는 성인교육, 장애인을 위한 성인 교육, 이주자를 위한 기초언어교육이 있음.
- 성인교육은 계속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프로그램은 특정 직업 분야의 전문화된 기술을 제공하고 있음.
- 스웨덴 성인학습 기관(The Swedish Agency Flexible Learning)에서는 지역사회의 사람들에게 해당지역에서 배우기 불가능한 성인프로그램의 보충물을 제공함.
- Swedish for immigrants(SFI)에서는 스웨덴의 사회문화적 지식과 스웨덴어를 이민자들에게 가르치며, 또한 지역자치구는 새로운 성인 이주자에게 SFI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SFI 프로그램은 지역자치구에 의존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되어 있음.

#### □ 중앙교육행정 제도

- 스웨덴의 교육행정제도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절충한 방식으로 중앙에 교육육성을 두어 교육정책의 입안, 교육개혁의 원칙, 교육에 관한 법률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교육정책의 원칙들을 결정함.
- 실질적인 중앙의 교육행정 및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은 중앙의 한 행정기구인 학교교육청(Skoloverstrelsen)과 대학청에 위임되고 있으며 다시 말해 이중행정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스웨덴 중앙교육행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교육청과 대학청은 교육성의 산하에 있기는 하지만 고도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고 실상 교육성 장관에게는 이 두 청에 대한 지휘 명령권이 없음.
- 학교교육청은 최고 행정책임자인 청장과 차장 밑에 학교교육국, 성인교육국, 교사양성 및 교육개발국, 계획국, 행정 관리국의 5개국을 두어 행정사무를 분담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
  - 국가의 교육발전을 촉진하고 교육학적 연구
  -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성격을 달리하는 학교교육을 조정하고 교육기회를 확대



- 교육정보를 수집하여 지방교육당국과 각종 교육기관에 배부하고 이러한 기관들의 교육상담에 응함.
- 여러 형태의 교육적 봉사를 함.

□ 지방교육행정제도

- 중앙교육청 산하에는 현 교육청이 있고 이보다 하급행정기관인 지방교육위원회가 있으며 스웨덴에는 24개의 도가 있고 각 도에는 도교육청이 설치되어 있음.
- 주요업무
  - 지방에 있어서는 교육을 계획하고, 군 수준의 모든 교육적 문제를 조정
  - 학교를 감독, 장학 지도하고 교사의 현직교육을 촉진
  - 국가의 보조금을 군 교육위원회에 배당
  - 교사를 임명
- 스웨덴은 그동안 교육의 지도·감독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관시키고 있으며 각 학교의 교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음.
- 최근에는 학급자문위원회와 학교상담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교육과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교육개혁 가운데서 논의되고 있는 학교위원회의 구성에 많은 시사를 주고 있음.

#### IV. 방문 교육기관 및 활동

##### 1. 주요 방문기관

방문 국가	주요 내용
러시아	- 모스크바국립대 부설중학교 수학·과학영재학교 방문 - 차이코프스키 중앙 음악영재학교 방문
스웨덴	- 스웨덴 청소년 문화센터 방문
덴마크	- Øregard Gymnasium 학교 방문
벨기에	- 벨기에 교육부 방문
룩셈부르크	- Lycée Robert Schuman 학교 방문

##### 2. 각 나라 교육 기관별 방문 현황

국가 (일자)	방문기관	성격	방문 내용	비고
러시아 [7.08~7.09]	Intellectual School (모스크바 영재학교)	기관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현황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설립자, 설립 목적</li> <li>- 교육과정(과학, 수학, 물리, 외국어, 예능 등)</li> <li>- 우수교원 확보 사례 및 교원연수 우수사례</li> <li>- 학교운영 방침, 학생선발 과정 등</li> </ul> </li> <li>○ 교육현장 및 부대시설 시찰</li> <li>○ 질의응답 및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성교육 및 학생 진로교육</li> <li>- 영재교육 현황 및 방안</li> </ul> </li> </ul>	
	주러시아 대사	대사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 간담회</li> <li>- 러시아교육(예술·창의교육)관련 협의</li> <li>- 재외동포·한인교육 현황 및 추진 방안</li> </ul>	
	차이코프스키 중앙음악학교	기관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현황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현황 및 역사</li> <li>- 교육과정 및 수업지도</li> <li>- 각종 대회 수상 학생 지도 과정</li> </ul> </li> <li>○ 학생 콩크루 대비 연습·녹음 과정 관람</li> <li>○ 교육현장시설 및 공연홀 등 부대시설 견학</li> <li>○ 질의응답 및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교원 확보 방안 및 우수사례 수집</li> <li>- 우수교원 인세티브 사례</li> <li>- 일반교양 및 예술교육</li> <li>- 예술인재 대상 전인교육</li> <li>※ 유학생 면담 및 격려</li> <li>※ 음악학교 교장 피아노 연주 관람</li> </ul> </li> </ul>	

국가 (일자)	방문기관	성격	방 문 내 용	비고
스웨덴 [7.11]	스톡홀름 청소년문화원	기관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 현황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음악/무용 등 관련 교육활동의 정규과목과 통합 운영 방안</li> <li>- 부적응학생 지도 등 관련 교육 제도</li> <li>- 학생이 주도하는 “평온한 거리” 사업</li> <li>- 각종 교육 프로그램 학생 참여율</li> </ul> </li> <li>방학중 학생 활동 참관</li> <li>교육현장 및 부대시설 시찰</li> <li>질의응답 및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예산 및 정부 지원</li> <li>- 청소년대상 창의적 체험활동 방안</li> </ul> </li> </ul>	
덴마크 [7.12]	Øregard Gymnasium (외레하드 고등학교)	기관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현황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언어 및 국제정치)</li> <li>- 학생 진로교육</li> <li>- 평등교육</li> <li>-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실습형 시험 제도</li> </ul> </li> <li>교육현장 및 부대시설 시찰</li> <li>질의응답 및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진학을 및 취업률</li> <li>- 미취업자를 위한 교육 정책</li> </ul> </li> </ul>	
벨기에 [7.15~7.16]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사	대사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 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벨기에) 교육의 특징</li> <li>- 유럽(벨기에) 각국 교육기관간 국제교류 방안</li> </ul> </li> </ul>	
	벨기에 교육부	기관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벨기에 교육 현황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교육 및 대학지원 제도</li> <li>- 벨기에 교육체계</li> <li>- 자율형 학교 운영</li> <li>- 벨기에 제2외국어교육 정책</li> </ul> </li> <li>질의응답 및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교원 선발 및 임용 방안, 교원연수 방안</li> <li>- 여성교원 지위확보 방안</li> <li>- 교사-학생 교류 등 국제교류 방안</li> <li>- 전반적인 학생 지도 및 관리</li> </ul> </li> </ul>	
룩셈부르크 [7. 17]	Lycée Robert Schuman (리세호베호슈망고교)	기관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현황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현황 및 역사</li> <li>-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 및 학업 성취</li> </ul> </li> <li>교육현장 및 부대시설 시찰</li> <li>질의응답 및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성교육 및 생활지도 방안</li> </ul> </li> </ul>	

### 3. 방문기관 소개, 방문 소감 및 시사점

#### 인텔렉추얼 수학·과학영재학교(Intellectual School)



방문일자	2013년 7월 8일 일요일
방문지소개 1	인텔렉추얼 수학·과학영재학교 (Intellectual School)
<b>1. 설립 역사</b> 2003년 9월에 여러 분야에 고루 영재성을 드러내는 영재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다른 정서적 상태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반 영재와 특수영재를 함께 교육하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고 교육 성과도 분명하다는 러시아 영재교육 역사의 결과물에 기반을 두고 개교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학문의 ‘발견자’이자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 10년 간 일반영재를 모아 교육한 다른 영재학교의 경험을 살려 이 학교의 설립을 결정하였다. 그 후 모스크바에 있는 영재교육전문교원들로 구성된 준비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약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에 있던 학교 건물을 개조하고 교원을 충원하였다. 물리와 역사에 고루 흥미가 높고 능력이 출중한 학생이라면 일반 학교나 특수 영재학교에서 그 육구를 충족시키고 능력을 발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에 착안, 이 학교에서는 주로 그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b>2. 학생</b> 첫 입학생으로 60명을 뽑을 예정이었으나, 비슷한 수준의 학생이 밀집되어 70명을 뽑았다. 현재는 5학년부터 8학년까지 총 70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매년 5학년을 뽑을 예정이고 현재 뽑힌 학생들은 11학년 졸업 할 때까지 이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한다. 현재 5학년 중에는 7세인 학생도 있다. 1개 반은 원칙적으로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과목에 따라 자신이 희망하는 과목을 배우기 위해 학생들이 이동한다. 교실에서 ‘듣는’ 수업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연구결과는 적당한 기회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9학년부터는 연구주제를 스스로 정하거나 교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돕는다.	
<b>3. 선발과정</b> 3단계 선발 과정을 거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수학 시험을 거치고 나서 수학, 생물, 언어, 역사 4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하여 기초 지식을 확인하는 단계</li> </ul>	

방문지소개 2	인텔렉추얼 수학·과학영재학교 (Intellectual Sch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단계 창작활동 시험으로서 학교에서 부여한 것이나 학생 스스로 선택한 어떤 주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양식을 적용하되 반드시 공개된 자리에서 발표회를 거치는 창의성 테스트 * 1단계에서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2단계 응시 가능(기초가 약한 학생 중 창작활동이 월등히 뛰어난 영재들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단계 2단계에서 선발된 영재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제 수업을 실시하며 8개 과목에 대하여 과목당 2시간, 2주간 실시함 이 기간 중 영재성 검사, 영재아의 심리 관찰, 영재아에게 적합한 수업 및 생활 양식을 적용한다.</li> </ul>	
<p><b>4. 교과과정 1</b></p>	
<p>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재성은 약 2~3% 학생만이 자신의 능력을 발현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여러 가지 장애로 영재성을 구현하지 못한다고 한다. 따라서 교과과정을 구성할 때 영재성 발달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거하고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하도록 하며, 그리고 학생이 흥미를 가지며 능력을 발휘하는 분야를 전문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려 그 결과를 타인 앞에서 발표해보도록 한다. 이 학교의 설립부터 전 과정에는 영재심리 연구소 소장 및 연구원을 비롯한 다양한 영재심리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p>	
<p><b>5. 교과과정 2</b></p>	
<p>학생들이 신체적으로 고루 발달하는 것을 돕기 위해 4교시가 끝나면 전체 학생들이 학교 안팎을 산책하도록 한다. 그리고 수업이 이어지고 점심시간 후 충분히 뛰어 놀거나 자유시간을 갖도록 한다. 오전 수업과 오후 수업은 학생들이 각각 다른 느낌을 갖도록 수업 방식과 내용을 만든다. 이를 통해 아이들을 덜 지루하게 하고 생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오전 수업은 특정과목별 기본 수업이 개인별 교과과정에 따라 진행되고 오후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특별 과정이 진행되며 이 시간은 주로 창의적인 활동을 한다.</p>	
<p>현재 학생들은 원하는 수업의 종류, 양을 스스로 결정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학교는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가르쳐 준다. 따라서 영재들이 당연히 갖출 최소한도는 정해졌으나 도달할 상위 수준은 정하지 않는다. 5, 6학년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인성과 교양을 위해 자연과학 뿐 아니라 특히 인문학 수업을 중요시한다. 역사 교실에는 슬라이드 자료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역사를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고 있다.</p>	

방문지소개 3	인텔렉추얼 수학·과학영재학교 (Intellectual School)
<p>즉, 역사를 책에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시시대를 수업할 때는 맘모스 뼈를, 고대를 수업할 때는 그 당시의 유물을 가져다가 만져보도록 한다. 생물 실험실이 딸린 생물 교실에서는 살아있는 동식물들이 있어서 새가 날아다니거나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다. 박제를 가져다 놓기는 했지만 학교의 설립 철학에 따라 아이들이 자연 그대로를 보다 가깝게 만나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과정 및 운영의 원칙 스스로 배우는 능력을 키우고, 학생이 원하는 만큼 가르침</li> </ul>	
<p><b>6. 교육 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은 물론 연구활동을 장려함</li> <li>- 각 교과별로 학생들이 도달해야할 최소한의 수준은 정하되 최대 목표를 정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 배울 수 있도록 함</li> <li>- 모든 과목을 개인 지도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어려워 세분화된 많은 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작은 그룹단위로 나누어 수업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능력을 발현하고 영재아가 원하는 만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li> <li>- 모든 학생은 저마다 다른 교과과정을 가지게 됨</li> <li>- 오전 기본 수업 후 오후에는 특별수업을 실시하며 특별수업은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 과학분야와 음악, 무용 등 예술분야, 언어분야, 역사 등 전 분야에 걸쳐 학생들이 배우고 싶거나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을 개설하고 작은 그룹이 만들어지며 나이와 상관없이 개개인의 관심분야별로 참여함</li> <li>- 이 학교에 선발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하여 절대 평가보다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전학년동안 누적집계 함</li> <li>- 모든 창작활동은 반드시 발표회를 거쳐 평가를 하도록 하는데 이는 각 학생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이 타인들 앞에서 서는 것을 익숙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li> </ul>	
<p><b>7. 교원</b></p>	
<p>학교 설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교원문제였다. 다방면에 관심과 능력이 있고 아이들과 있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교과서를 스스로 쓰거나 현재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교수, 교사들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총 교직원이 72명, 이중 30명의 전임 교사와 25명의 겸임 교사가 있으며 이중 교수급이 상당수이며 주로 모스크바 국립대, 물리대학, 국립사범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연구소의 연구원들이다. 또한 교사의 학위를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주요 활동</b></p>	<p>아침 9시 무렵 모스크바 주재 대사관에서 연구관 2명과 통역관 및 모스크바 유학생이 방문에 동행하기 위해 합류하였고 9시 정각에 학교에 도착했다.</p> <p>학교정문 앞에서 이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교사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 학생들은 만나 볼 수 없었다.</p> <p>학교정문 앞에 있는 설립자이며 초대 교장에 대한 설명을 받은 후 학생의 실험실과 교실 및 휴게실까지 모두 돌아보았다. 학교는 오래된 초등학교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척 낡아있었다. 한국의 영재학교에서 볼 수 있는 최첨단기자재와 멋진 시설을 전혀 볼 수 없었다. 다만 교실 칠판에 수학올림피아드대회 참가를 위해 문제를 프린트해서 붙여 놓은 것을 보고서야 이곳이 영재학교구나 알 수 있었다.</p> <p>교장실로 옮겨 학교전반에 대한 설명을 1시간 30분 정도 설명을 듣고 30분 정도 질문과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다.</p> <p>영재선발과정과 융합하여 가르치는 과목들과 정서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시사점</b></p>	<p>다른 영재학교와 달리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 학교로서 교과목도 수학·화학, 물리·화학 등으로 융합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다. 또한 예술과의 융합, 외국어학습과 봉사활동에도 힘쓰고 있었다. 요즘 융합교육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아예 융합과목을 개설하여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더 심층적으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여겨졌다.</p> <p>수학·과학영재고등학교는 수학·과학인재가 아니라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있었다.</p> <p>모든 과목이 두과목 융합되어 있었다. 수학·물리, 물리·화학</p>
<p style="text-align: center;"><b>소감</b></p>	<p>융합교육을 막 시작하며 고민하는 우리에게 융합영재학교를 10년 먼저 설립하여 운영하는 러시아를 보고 정말 놀랐다. 우리의 융합교육을 진지하게 진단해 보고 여러 가지로 보완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p>

**교육기관 방문 사진 (인텔렉추얼 영재학교)**



인텔렉추얼 영재학교



인텔렉추얼 영재학교 설립자의 동상



인텔렉추얼 영재학교 소개 및 질의응답



학교시설 관람



학생휴게실



학생들이 직접꾸민 벽



## 차이코프스키 중앙음악학교

방문일자	2013년 7월 8일 월요일 오후
방문지소개 1	차이코프스키 중앙음악학교
<p><b>1. 학교소개</b></p> <p>러시아 음악예술의 뿌리 - 차이코프스키 중앙음악학교</p> <p>차이코프스키 음악대학교 부설학교로 유명한 중앙 음악학교의 정식명칭은 차이코프스키 중앙음악학교이다. 이곳은 민중 예술가이자 지휘자 및 연주가로 명성을 떨쳤던 러시아의 음악가 A. 골덴바이저(A. Goldenveizer)에 의해 1932년에 세워졌다.</p> <p>차이코프스키 중앙 음악원은 재능이 있는 학생을 위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좋은 학교 중에 하나다. 창설 후 68년 동안 전 세계에 많은 훌륭한 음악가를 배출했다. 그 예로는 G.라퀴첸프벤스키, 꼬간 , 로스트 페트로비치, 아쉬케나지 등 다수로서 전 세계 음악예술의 자랑이다. 아직 까지도 학교에 남아 있는 음악가와 연주는 골덴베이제르 , 나세드간, 앙콜스키 , 내이가우즈 등이다.</p> <p>이 학교에는 국제 콩쿠르에서 우수한 제자를 배출한 우수한 교수진이 가르치는 데, 이 중에서 스페샤레프 , 가르노스파예바, 나세드긴 , 세바도프, 돌취는코프 등이 있다.</p> <p><b>2. 전공과목</b></p> <p>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룻, 클라리넷, 트럼펫, 트럼본, 성악, 오보에, 파곳, 프렌치호른, 튜바, 합창지휘, 작곡</p> <p><b>3. 학교시설</b></p> <p>학교 건물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잘 마련되어 있다. 교내에는 자그마치 4개의 콘서트홀이 있는데, 기념일을 위한 콘서트와 학생 발표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규모 홀을 비롯하여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전문 콘서트홀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개별 연주실 또한 정상급 연주자들의 연습실 못지않은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p>	

방문일자	2013년 7월 8일 월요일 오후
방문지소개 2	차이코프스키 중앙음악학교
<p><b>4. 학생선발 - 전 러시아, 전 세계 영재들의 배움터</b></p> <p>러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학생들은 직접 학교에 찾아와 자신의 전공 악기를 가지고 교사들로 구성된 입학 허가위원회 앞에서 준비된 곡을 연주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문시험이 여유치 않은 외국 학생들은 자신이 연주한 곡을 CD에 담아 학교로 발송한다. 그러면 심사관들은 1차 평가를 가진 후 학생에게 개별 통보를 하여 입학유무를 알려 준다. 이외에도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여 자신의 실력을 입증한 학생이라면 입학하기가 수월하다.</p> <p>아직 악기를 연주할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취학 전 아동들이다. 차이코프스키 학교에는 3-4세부터 &lt;미취학반&gt;에 입학할 수 있는데, 이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전문가 가운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들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몇 가지로 구분되는데 취학 전 아동들은 먼저 청음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심사관은 아이들과 함께 교실에서 놀이를 하듯 하며 피아노소리를 들려준다. 그러면 아이들은 심사관이 들려 준 멜로디를 입으로 소리 내어 알려준다. 혹은 피아노 연주가 어느 정도 가능한 아동은 피아노에 앉아 직접 음을 잡아낸다. 그 다음 테스트는 리듬과 멜로디다.</p> <p><b>5. 진정한 의미로서 조기교육의 실현</b></p> <p>학교의 교장 직을 맡고 있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움치니코프(Vladimir Ovchinnikov)는 음악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시기라는 점을 여러 번 힘주어 강조하였다. 아무리 아동이 재능이 있다고 하여도 어렸을 때부터 개발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차이코프스키 음악학교에서는 3-4세가량의 유아기 아동들부터 교육을 시킨다고 하였다. 그는 "유아기 때 길러진 음악적 재능, 다시 말해 정확한 박자를 맞출 수 있는 리듬감과 정확한 음을 들을 수 있는 청음은 어렸을 때 한번 배게 되면 평생 갑니다. 음악에서 기본이 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익히기 위해서는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얼마나 악기를 잘 연주하는가는 그 다음입니다. 이 부분에도 타고난 재능이 필요하지만 노력으로 극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의 리듬과 청음보다는 후자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힘주어 강조하였다.</p>	



주 요 사 건	<p>대사님과 점심오찬이 끝나자 마자 우리 일행은 차이코프스키 중앙음악학교로 향했다.</p> <p>학교는 고풍스런 건물들이 둘러있는 곳에 있었다. 학교출입문부터 이중 경비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고풍스럽고 고급스런 건물에 현대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 학교였다.</p> <p>교장 블라디미르 옴치니코프(Vladimir Ovchinnikov)는 한국에서 여러번 콘서트를 했었다고 한다. 그는 차이코프스키콩쿠르, 영국리즈콩쿨을 석권하신 분으로 직접 우리일행을 맞아 주었다. 학교 시설을 하나하나 설명하여 주고 작은 콘서트홀에서는 학생들이 이곳에서 입학시험을 치르는 곳이라며 교장이 즉석에서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었다.</p> <p>큰 콘서트홀을 관람하러 갔을 때 그곳에서 재학생이 음반제작을 위한 연주를 하고 있어 매우 조용히 잠깐만 관람할 수 있었다.</p> <p>무엇보다 반가웠던 것은 우리나라학생, 유나인(9학년)학생을 만난 것이었다. 그녀는 방학인데도 집에 가지 않고 어머니와 학교에 와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교장선생님의 칭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국에서도 연주회를 계획하고 있었다. 두 분 교육감은 여러 가지로 이 학생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셨다.</p>
	<p>음악교육의 조기교육의 중요성이다. 3~4세에 리듬과 청음을 익히는 것이 훌륭한 음악가로 성장하는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오래전부터 3~4세아이들을 선발하여 가르치는 음악영재교육이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본다.</p> <p>21세기는 문화콘텐츠의 시대, 예술영재양성을 위한 전문가양성이 필요하다. 아주 어린아이들의 음악영재성을 찾아내는 전문가들을 많이 보유한 러시아는 세계의 음악영재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한국도 음악적으로 많은 대회에서 석권하고 있지만 이런 성과는 대부분 외국유학의 결과이다. 이제 음악영재양성을 위한 전문가도 양성하고 전문기관도 마련할 때가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p>
소 감	<p>3,4세부터 시작되는 음악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쉽게 피아노학원을 볼 수 있지만 3,4세부터 가르치는 학원은 거의 없다. 공교육은 더더욱 없다. 요즘은 유치원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고 있는 이즈음에 음악조기교육에 신경을 더 써주는 교육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p>

## 교육기관 방문 사진 - 차이코프스키 중앙음악학교



차이코프스키 중앙음악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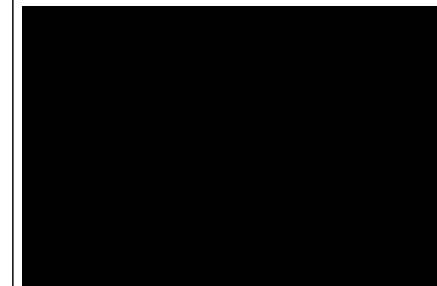
많은 훌륭한 음악가들의 산실



학교소개 및 질의응답



우리나라 재학생 유나인  
(가을에 그녀의 한국공연이 기대된다.)



블라드미르 교장의 피아노연주



방명록에 나중을 위한 여운을 남기고...



## 스웨덴 스톡홀름 청소년 문화센터

방문일자	2013년 7월 11일 목요일 오전
방문지소개 1	스웨덴 스톡홀름 청소년 문화센터
<p><b>1. 문화센터 소개</b></p> <p>본래 냉동고였던 건물을 개조하여 만들어졌고 세계에서 가장 큰 문화센터로 다양한 activities이 있다. 체육(농구)로 시작하여 지금은 음악, 무용 등으로 이어져 갔으며 지금 많은 다양한 교과 외 활동들을 하고 있고 초중등학교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스톡홀름의 각 지역에 부속응하는 학생들이 아이들이 그 센터에 와서 보통교육과정에 자신이 열정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한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핵심활동이라고 한다. 530명의 직원, 130명의 교사가 근무이며 자율형 공립학교 2개도 함께 운영되고 있었다. 1000명의 자원봉사자와 15000명이 학생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온라인 활동을 전개하여 15만명이 링크되어 활동 중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p> <p><b>2. 센터운영예산</b></p> <p>학교예산 1/3 school money, 1/3학교프로젝트를 판 수입금, 1/3은 여러 회사의 기부로 이뤄진다고 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이미 태어나면서 모든 교육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며 그 학생의 등에 school money를 지어 주기 때문에 어떤 학교로 가든 그 학교에 예산이 배부되는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학교예산은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모두 무상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학생들은 매력 있는 학교로 몰려들게 되어있어 학교는 매력적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p> <p><b>3. 센터의 특별한 교육방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들의 힘을 키워주는 프로젝트 운영</li> <li>- 현실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하여 운영</li> <li>- 정규과목과 통합하여 운영</li> </ul> <p><b>4. 특별프로그램 - 범죄를 막기 위한 'Lugna Gatan( 평온한 거리)' 프로젝트 운영</b></p> <p>청소년의 범죄가 지하철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알고 1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이 청소년센터가 중심이 되어) 4명씩 조를 편성하여 20분마다 순찰을 나간다. 5~새벽3시 활동하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었던 학생들을 유도 및 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p> <p><b>5. Local Theater</b></p> <p>음악, 연극발표를 위한 7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극장이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7월 말 있는 공연 준비를 하고 있었다.</p>	

주요활동	<p>센터에 들어서자 이곳에 나이는 들어보이나 건장한 센터책임자중 한분이 우리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교직원들이 대부분 휴가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1층에는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휴가를 가지 못한 가정의 학생들이 각종 놀이를 하고 있었고 자원봉사자티를 입은 20대가량의 지도학생들과 학생들이 뒤섞여 활동하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p> <p>먼저 센터에 대한 소개가 대략 30분가량 있었고(위글에서 소개) 시설들을 돌아보며 더 자세하게 프로그램소개와 시설물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엄청난 크기의 체육관들이었다. 실내체육관이 여러 개 있었고 실내 스케이트보드장이 초급과정부터 고급과정까지 설치되어있었는데 대회도 열릴 정도 수준 높은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p> <p>학생들의 활동모습을 관람하고 범죄를 막기 위한 'Lugna Gatan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와 방도 관람하고 공연 준비 중인 부속시설인 극장도 관람하였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청소년센터가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스톡홀름학생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었다.</p>
시사점	<p>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오는데 그 학생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그룹을 지어 참여하도록 한다고 한다. 그 정규교육과정도 똑같이 운영하지만 그 특별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문제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고 한다.</p> <p>그들 중에는 다문화학생들도 많이 포함되는데 스웨덴의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다문화학생들의 변화, 그들이 이끌어가는 'Lugna Gatan 프로젝트'는 다양한 언어군으로 치안에 어려움이 많은 스웨덴 경찰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p> <p>현재 우리도 하고 있는 동아리활동이 학생스스로가 선택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발현하기 위한 것으로 가꿔 가야한다.</p>
수감	<p>다양한 문제로 위기에 처한 문제학생들의 가능성을 찾아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참여시켜 가능성을 발휘하도록 돕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자주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았었고 가능성을 보기는 했지만 그들의 열정을 이끌어주고 지원해주지는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일행모두는 각자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우리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p>



☐ 교육기관 방문 사진 - 스톡홀름 청소년 문화센터

	
스톡홀름 청소년 문화센터	활동중인 아이들
	
센터에 대한 설명중	큰 규모의 체육관
	
실내 스케이트보드장	범죄예방프로그램 Lugna Gatan

덴마크 코펜하겐 외레스타드 고등학교(Øregard Gymnasium)

방문일자	2013년 7월 12일 금요일 오전
방문지소개 1	덴마크 코펜하겐 외레스타드 고등학교(Øregard Gymnasium)
<p><b>1. 덴마크의 교육</b></p> <p>덴마크는 바이킹의 후예 도시가 바다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로 수상가옥도 많이 볼 수 있는 나라이다. 코펜하겐은 1843년 건립한 160년 된 도시로 94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이다. 1973년 EU하였는데 세금을 많이 내지만 경찰이 필요 없어 경찰을 찾아 볼 수 없는 평화로운 나라.</p>	
<p><b>2. 덴마크교육의 특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교육이 없는 나라이다.</li> <li>- 이 나라의 교육의 특징은 황태자나 소수자의 자녀가 똑 같은 교육을 받는다.</li> <li>- 교육은 평생 무료교육을 한다. 12학년/9학년제를 운영한다.</li> <li>- 학력에 격차가 없다.</li> <li>- 0학년 - preschool 5-6세, 7세 입학 9학년 졸업 후 3년 과정을 선택해야 한다.</li> </ul>	
<p><b>3. 학교소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태자 2명 다녔다.</li> <li>- 초등~9학년까지</li> <li>- 800명의재학</li> <li>- 과목 : 국제정치, 언어(영어,독일어,스페인어,중국어)</li> <li>- 80명의 교사</li> <li>- 기숙사 없다.</li> <li>- 일반고등학교 HD-이과, HF-사회,문과 나뉘져 있다.</li> </ul>	
<p><b>4. 기타</b></p> <p>고등학교 졸업 후 석사까지의 통합과정 이나 학사로 끝나는 과정으로 진학한다. 덴마크에서는 의사나 변호사도 모두 공무원이기 때문에 개인병원이 없다. 돈을 벌고 싶으면 사업가가 되어야 하며 사업장을 내면 3년간 세금이 없다. 농사를 지으려면 농대를 나와야 땅을 매입할 수 있다. 학사로 끝나는 대학과정은 현장에서 직접 쓸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위주의 수업이 진행된다. 시험은 실제 사회에서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면 시험이 통과된다. 4년 배우고 6개월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iploma engineer로 취업률이 매우 높다. 89%학생이 이런 방식으로 취업한다. 취업하지 못하는 11%는 정부에서 취업을 책임진다.</p>	

<b>주 제 배 경</b>	<p>학교는 코펜하겐 근교에 넓은 부지 위에 고풍스럽게 서 있었다. 1층 홀에 들어서자 크고 멋진 홀이 마치 호텔 리셉션처럼 멋지게 꾸며져 있어 우리기분을 좋게 하였고 교감선생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하지만 학교는 여름휴가철을 이용해 리모델링 중이라서 여러 가구들과 기자재들이 학교이곳 저곳에 쌓여 있었다. 위층에는 몇몇 학생들이 뭔가에 골몰하며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p> <p>우리는 교감선생님으로부터 덴마크 교육과 학교에 대한 소개를(위 자료 참조) 받고 학교를 돌아보았다. 교감선생님은 이 학교에 황태자 두 분이 다녔다고 말씀하시며 덴마크는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이 이뤄진다고 설명하여 주었다. 무엇보다 모든 교육이 무료이며 대학진학시 자기 적성에 맞게 진학하고 4년제 대학은 근로현장에 직접 필요한 기술 중심, 실습중심의 수업이 이뤄지며 이런 engineer들에 대한 대우가 매우 좋다고 했다. 의사나 변호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사, 변호사 되기 위한 엄청난 경쟁은 없으며 돈을 벌고 싶다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을 시작하면 3년 세금면제 실패하면 5년간 국가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또한 엄청난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p>
<b>시 사 점</b>	<p>대학교육시스템의 2원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년제 대학은 아예 산업현장에서 실습위주로 이뤄지고 있고 대우가 더 좋고 취업도 보장되고 있었다. 직업학교는 숙련된 마스터에게 직접 현장에 가서 배우는 도제수업을 받으므로 200개의 세분화된 전문 분야가 있어서 덴마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각 직업별 영역을 다 포괄하고 있다.</p>
<b>소 감</b>	<p>대학교육이 절반이상의 교육과정을 숙련된 마스터가 있는 현장에 맡겨 일찍부터 전문가를 키우는 교육시스템이 부러웠다. 4년을 바쁘고 다니고도 비슷비슷한 스펙과 비슷비슷한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의 문턱에서 끊임없이 좌절하는 우리나라 젊은이들과 이것을 수수방관하며 끊임없이 동일한 인재들을 대량생산하는 듯한 한국의 대학교육의 현실을 어떻게든 바꿔 봐야하지 않을까 자문해 보았다.</p>

## ☐ 교육기관 방문 사진 - 덴마크 외레하드 김나지움

	
<b>외레하드 김나지움</b>	<b>학교에 대한 설명</b>
	
<b>1층 중앙홀 - 손님과 선생님들만 통행</b>	<b>교감선생님의 학교설명</b>
	
<b>운동장의 인조잔디 시설 관찰</b>	<b>학교 견학과 설명에 대한 감사</b>



## 벨기에 교육부 방문

<b>방문일자</b>	2013년 7월 16일 <b>화요일 오전</b>
<b>방문지소개 1</b>	<b>벨기에 벨기에 교육부 방문</b>
<p>1. 벨기에 교육제도  벨기에의 공식어는 불어, 네델란드어, 독일어로 나누어져 있어 지역별 교육제도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은 국가의 기본 정책이다. 따라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학교 교육비용은 당연히 국가의 책임이며 학부모는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부터 자유롭다. 공립학교는 100% 국비로 운영되며, 사립학교는 95% 이상의 정부지원과 일부 찬조금으로 운영된다.</p> <p>2. 학비 : 학비무료, 교과서도 반납하고 물려받으며 학용품도 일부 지원한다.</p> <p>3. 낙제제도  벨기에의 교육제도에서 낙제는 빼 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매년 초등학교 낙제율(유급)은 불어 지역에서 18%, 중·고등학교에서는 약 25-30%, 대학 1학년에서 60%를 상회하고 있다.</p> <p>4. 대학입학시험 : 대학입학시험은 없지만 낙제가 있다. 낙제하면 기회를 다시 주는데 2번 낙제하면 다른 대학을 진학을 권고 받는다.</p> <p>5. 학제  - 유치원 5년 2세반부터 6세까지  - 초등학교 6학년 6세 입학  - 중학교 3학년 11세 입학  - 고등학교 3학년 14세 입학</p> <p>6. 기타  - 벨기에에는 이민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유아교육을 통해 언어교육을 제공  - 가능하면 모든 어린이가 유아교육을 받도록 권장  - 유아교육을 다 받지 못하면 초등교육을 받지 못함  - 교육의 자유 : 학생들은 학교나 프로그램을 고를 수 있는 자유가 있음</p>	
<b>주 요 내 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벨기에 교육 현황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교육 및 대학지원 제도</li> <li>- 벨기에 교육체계</li> <li>- 자율형 학교 운영</li> <li>- 벨기에 제2외국어교육 정책</li> </ul> </li> <li>◦ 질의응답 및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교원 선발 및 임용 방안, 교원연수 방안</li> <li>- 여성교원 지위확보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학생 교류 등 국제교류 방안</li> <li>- 전반적인 학생 지도 및 관리</li> </ul> </li> </ul> </li> </ul> <p>벨기에 교육부에 벨기에 주재 한국대사의 주선으로 방문하여 교육제도에 대한</p>

	<p>브리핑과 여러 가지 교육적인 논의를 할 수 있었다. 교육부 홍보담당과장님과 대학교육담당직원들과 우리일행이 세미나실에서 브리핑을 받고 벨기에 교육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을 받았다.</p> <p>무엇보다 세종시에서는 스마트교육을 소개하고 차후 교류에 대한 제안을 하였으며 충북교육청에서는 교원평가, 교사선발, 감사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논의가 있었다. 또한 제2외국어 정책에 걸맞게 대학에 한국어강좌개설에 대한 제안을 하였으며 차후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기로 약속을 받았다.</p>
<b>시 사 점</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벨기에에는 대학입학시험이 없다. 대학입학시험 부작용도 없다. 사교육비도 없다.</li> <li>2. 낙제시스템이 있었다. 초중고의 낙제시스템에서는 부작용이 있어 고심증이 었지만 대학낙제시스템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li> <li>3. 학교의 자율화가 잘되고 있다. 모든 결정은 학교가 하고 정부에서는 재정지원과 감사는 학생들의 평가 결과만 시행한다.</li> </ol>
<b>소 감</b>	<p>벨기에에는 대학입학시험이 없었다. 하지만 대학낙제시스템이 있었다. 대학입시 때문에 전국가적 차원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격이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의 국민소득을 자랑하며 유럽에서는 정치적인 영향력 또한 지대한 유네스코가 인정한 교육제도의 장점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p>

### ☐ 교육기관 방문 사진 - 벨기에 교육부

	
<b>벨기에 교육부</b>	<b>벨기에 교육에 대한 브리핑</b>



## 리세호베흐슈망고교 방문

방문일자	2013년 7월 17일 수요일 오전
방문지소개 1	<b>룩셈부르크</b> <b>리세호베흐슈망고교 방문</b>
주요 활동 및 시사 점	<p>1. 룩셈부르크의 교육소개 작지만 강한 나라 룩셈부르크는 국맹률 0%에 모든 국민이 3개국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는 일인당 국민소득 6만불을 넘는 나라다. 11년의 의무교육기간이 있다. 유치원에서는 독일어, 프랑스어, 룩셈부르크어 등 3개의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며 초등학교 6년 과정 동안의 수업은 독일어로 진행되며 프랑스어와 독일어는 필수과목이며 고학년이 되면 영어가 추가된다. 6년의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나면 학교장, 학생, 심리학자, 중·고등학교 과정의 선생님들이 모여 중등 과정으로 갈 학생이 어떤 학교를 갈 것인지 결정한다. 사실상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인생의 진로가 결정된다. 중·고등학교 과정은 5년에서 6년인데 이 과정은 두 종류의 학교로 나뉘어진다. 초등학교의 성적에 따라 진로가 나뉘어지는데 직업을 구하기 위한 기술학교와 대학에 가기 위한 인문학교가 그것이다. 기술학교는 또 그 실력에 따라 졸업 후 바로 직장을 구하기를 원하는 기술학교와 졸업 후 전문학교나 좀 더 나은 직장을 구하기를 원하는 기술학교로 나뉘진다</p> <p>2. 학교현황 청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현황 및 역사</li> <li>-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 및 학업 성취</li> <li>- 교육현장 및 부대시설 시찰</li> <li>- 질의응답 및 논의</li> <li>- 인성교육 및 생활지도 방안</li> </ul>
소감	<p>학생들의 진로가 이미 중학교 입학 때부터 결정되고 고등학교에서는 전문기술을 배우거나 전문학문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진학으로 진로를 결정되는 우리와는 많이 달랐다.</p>